지방자치단체의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도농교류 활성화방안 연구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

The Study of Interchang Active Between Urban and Rural on the Rural-Learning-Village of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Chungnam Province -

송 두 범 (충남발전연구원 - 주저자)
이 신 석 (한서대학교 - 공동저자)
심 문 보 (한서대학교 - 교신저자)

Abstract

Dubeom Soung / Shinseok Lee / Moonbo Sim

One of the most important subject for activation of rural communities are the economic diversification and income generating. To increase the creativity of local residents conjugations of local resources to promote economic activity by activating the agricultural sales and income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of the utiliza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regional specialties, women and elderly workers with experience, native place network commercialization, regional capital, ideas, the use of traditional techniques, and discovering the local talent and foster through. The exchange related programs should be left to the private self competence with regard to subject of the between urban and rural exchanges, but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support of vulnerable, even inevitable that private sector involvement should be in the direction of self empowerment. And the between urban and rural exchanges programs, in particular, the uniqueness of the area, character, uniqueness, in terms of commercialization development of region specific goods and services should be based on a niche market strategy. Enabling the urban between rural exchanges area of the principal challenges for the policy planned approach, promoting the organization responsible for regional management capability to establish a support organization, the establishment of the urban between rural exchanges operating, IT strategy - interchange base reinforcement strategy - strategies such as strengthening links between urban and rural is required simultaneously.

주제어: 농촌체험, 도농교류, 고용기회, 행정지원, IT 전략

Keywords: Rural experience, The interchange between urban and rural, Employment opportunities, Administrative support, IT strategy

Ⅰ. 서 론

농촌은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의 감소화[1]·고령화[2]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대외적으로는 WTO, FTA, DDA 등의 세계시장 개방화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시장이 공격대상이 되면서 경제사정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농촌진흥청: 2009). 또한, 농촌은 정주에 필요한 기초 시설 및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이 도시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낙후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은 시장 개방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의 중심이었던 농림어업의 GDP 비중이 1995년 7%에서 2005년 3.4%로 절반정도로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촌에서 전반적으로 비농업 부문의 경제활동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적 변화 추이에 비교하여 농촌의 일자리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농업중심의 농촌에서 농촌의 소득원 다각화를 위한 농촌관광과 같은 도농교류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도농교류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의 소득증대 및 사회적 활력증진과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휴양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기존법률에 산재된 도농교류 조항들로 도농교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일법률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농촌체험·휴양, 자매결연 뿐만 아니라 농촌정주지원과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 도농교류와 관련한 내용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률인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07)'을 제정하게 되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도시와 농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육성, 도농교류활동 활성화, 도농교류활성화를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등 도농교류활동을 지원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도농교류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현재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 수는 총 165개[3] 마을이 지정되어 있다.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은 양적인 측면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기존의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뿐 아니라 최근 당진-상주간 고속도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과 대전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로부터 2시간 이

---

1) 농촌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미 적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2005년 현재 인구 2천명 미만인 면 지역은 287개로 전체 면의 23.9%에 달하며,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에는 558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면 지역의 46.5%에 해당한다.

2)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전체의 트렌드 속에서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면 지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3) 녹색농촌체험마을 81개, 어촌체험마을 11개소, 산촌생태마을 24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39개 마을 등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양호한 접근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입지적 장점을 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에도 정부의 도농교류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급격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를 경험하는 농산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새롭게 마련된 '도농교류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도농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충청남도 및 시군 차원의 도농교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어려움에 직면한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에 필요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도시 및 농어촌교류촉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도농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충청남도내 농어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실태를 분석하여 충청남도 도농교류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농촌체험 도농교류의 이론적 배경

1. 도농교류의 개념

교류(interchange)라 함은 사전적 정의로서 '(무엇인가를) 교환 또는 주고받는 것' 또는 서로 다른 무엇과 무엇이 접촉하는 것(中川聽七朗, 2003)을 뜻한다. '무엇인가'가 있고 이것을 서로 주고받거나 접촉하는 상황이 교류라고 하면, '도농 교류(urban-rural interchange)'는 이 무엇인가를 서로 주고받거나 접촉하는 주체가 도시민과 농촌 주민인 셈이다(임상봉: 2007).

그러나 '도농교류'가 농촌의 경제적・문화적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도농교류센터가 설립되기까지에 이르렀으나, 아직 도농교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이 사용되고 있다.

김병률(2001)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 매력요소를 교환함으로써 서로간의 결핍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동등차원의 주고받는 관계 혹은 공생관계를 만드는 것, 송미령(2003)은 사람, 물품, 서비스, 정보, 문화 등 제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관계를 통해 상호만족을 얻고자 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농촌연구원(2006)은 도농교류는 자연에 대한 이해와 농촌의 활성화와 같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사람의 교류에서부터 농산물이나 특산물과 같은 상품, 관광・휴양・체험 서비스, 정보, 문화, 자본 등의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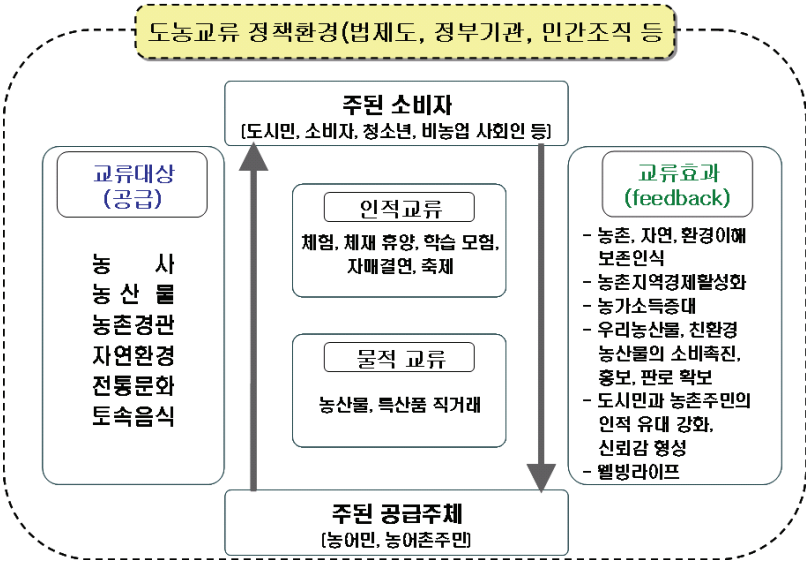
하므로 녹색관광이나 농촌관광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유정규(2006)는 상호대등 / 호혜의 원칙 하에서 도시와 농촌간에 무엇인가를 교환 또는 주고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경제적 의미에서의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뿐만 아니라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인간적인 신뢰를 중심으로 한 사람, 물건, 정보의 교류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와 농촌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07)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적교류와 농림수산물 등의 상품, 생활체험·휴양서비스, 정보 또는 문화 등의 교환·거래 및 제공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2.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도농교류의 구성요소는 수요자로서의 도시민과 공급자로서의 농업인 및 농촌주민이라는 교류주체와 농작업, 농산물, 농촌경관, 전통문화와 지역특산물 등과 같은 교류유인요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인적・물적 교류활동 및 과정, 그리고 교류효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농교류 구성요소 중에서 특히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도농교류 정책환경이다. 여기에는 각종 법제도, 도농교류 관련 정부기관, 도농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조직 등이 포함된다.

도농교류가 성립되기 위한 주요 구성요소로서 교류주체와 교류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류주체로서 도시와 농촌이라는 두 공동사회를 살펴보면, 우선 농촌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며, 농촌내의 단체로서 각종 기업, 지방자치단체, 농업위원회, 농협, 산림조합, 상공회, 관광협회, 소방단,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린이회 등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 그룹이 존재한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교의 교육기관과 병원・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나아가 사찰과 교회 등도 존재하고 있다.



자료 : 김미영 외. (2008).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29.

<그림 1> 도농교류의 구성요소

도시를 형성하는 주제로서 개개인의 주민이 다수이며 이들은 다양한 직업과 직종에 속해 있다 기업과 노동조합이 있으며 또 의회, 행정기간, 상공회의소, 관광협회와 소비자단체, 소방조직 등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가 농촌에 비하여 훨씬 많이 존재하고 있다. 교육기관과 의료기관도 다종・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농촌과 도시의 공동사회를 상호연결하는 것이 교류라고 규정한다면 교류주체의 짝짓기는 무수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농촌도 도시도 교류상대방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의 폭도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촌측이 교류를 추진하려는 경우 특히, 교류의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대방으로 좁히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고 또한 그런 선택을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농촌 측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농촌내부에 있어 교류주체를 설정해야 하며, 둘째, 도시 측의 교류주체를 확실히 선택하며, 셋째, 어떠한 교류내용을 택할 것인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이들 세가지 요소를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 측의 교류주체 설정에는 각 지역의 사정과 지역자원의 내용, 지역주민의 의향과 의욕정도 등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에 있어서 의견조율을 거쳐야 한다. 또한, 가능하다면, 오래된 관습과 제도에 젖어있지 않은 새롭고 신선한 주체가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할 것이다.

한편, 농촌 측이 도시 측의 교류주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

이 필요하겠지만, 주체 구성원의 다수, 다양함을 고려할 때 책임감 있는 창구(인재)를 찾아내는 것이 과제이다. 핵심은 교류의 상대(주체)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에 있으며, 제대로 된 교류 상대의 선택을 통해 교류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교류대상은 도농교류의 주된 목표를 농촌의 활성화로 삼을 때 수요·공급의 관계는 도시가 수요자이고 농촌은 주로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민의 요구를 염두에 둘 때 농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곧 교류의 대상이 되며 그러한 관계 및 내용은 <표 1>과 같다. 여기에 나열한 교류대상의 내용은 농촌에서 기대되는 기본적 요소들이며 이들을 다 갖춘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히 강조할 만한 몇 가지 요소만 가지고도 도시민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표 1> 도농교류의 주체와 대상

구 분	주 요 내 용	
교류주체	농촌 공동체	농업자와 비농업자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농촌내의 단체로서 각종기업, 지방자치단체, 농업위원회, 농협, 산림조합, 상공회, 관광협회, 소방단, 노인회, 부녀회, 청년회, 어린이회 등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 그룹이 존재
	도시 공동체	개개의 주민이 다수이며 이들이 다양한 직업과 직종에 속해 있음. 기업과 노동조합이 있으며 또 의회,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관광협회와 소비자단체, 소방조직 등의 다수의 기관, 조직, 단체가 농촌에 비해 훨씬 많이 존재
교류유인 요소	건강한 자연환경, 아름다운 경관, 농촌다움(정서적 요소-소박함, 정다움), 오래된 문화·전통·예술, 체험(농작업, 스포츠, 삼림욕), 먹거리, 특산물, 친절한 응대, 청결한 환경, 여유와 평안함	

자료 : 김미영 외. (2008).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31.

3.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로서「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김병률 외, 2000),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임상봉, 2004), 「도농상생을 위한 도농교류의 의미와 활성화 전략」(유정규, 2005),「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김미영, 2008),「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배중남, 2008)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농어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충남발전연구원, 2002),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의 개념과 자생적 발전방안」(강원발전연구원, 2002), 「충청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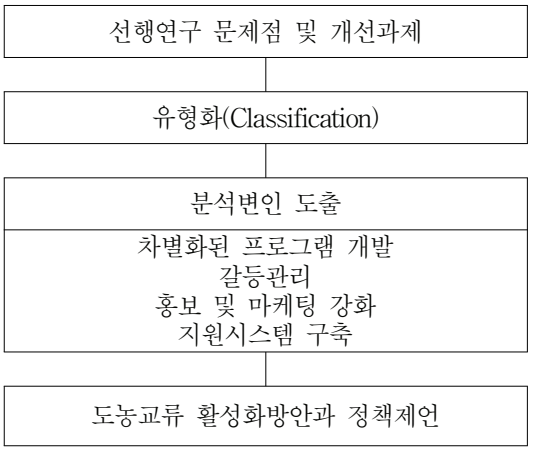
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연구」(충남발전연구원, 2005),「지역농업유형을 고려한 경북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대구경북연구원, 2006),「농산어촌체험마을 종합관리방안」(전북발전연구원, 2006), 「농촌관광마을사업 평가」(국회예산정책처, 2006), 「농어촌체험마을 활성화방안 연구」(제주발전연구원, 2008),「농어촌테마마을 활성화방안」(제주발전연구원, 2008),「전남지역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배중남, 2008),「경남의 그린투어리즘 활성화방안」(경남발전연구원, 2009), 「당진-대전, 서천-공주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농촌관광 수요변화와 대응구조」(충남발전연구원, 2009)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와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선행연구들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전국적인 차원에서 기존 도농교류정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외국의 도농교류사례를 분석한 다음 우리 나라 도농교류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농교류의 연구범위가 대부분 전국단위이며 실제 도농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반면, 본 연구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은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현장조사를 토대로 수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주제인 도농교류라는 보다 확대된 개념보다는 유사용어인 그린투어리즘, 농촌관광, 농촌체험관광, 농촌관광마을 등의 이름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농교류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과 시각으로 접근하면서도, 실제 농촌체험마을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 실태 및 성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농촌체험마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②갈등관리 ③ 홍보 및 마케팅 강화 ④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변인으로 설정하여 조사 및 분석코자 한다.



<그림 2> 분석의 틀

Ⅲ.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현황

1. 충청남도 및 시군 도농교류 추진현황

충청남도의 도농교류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시책을 지원하는 형태와 충남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앙정부 추진시책을 지원하는 형태는 농업정책과의 “녹색농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수산과의 “어촌체험마을”농림수산식품부), 산림녹지과의 “산촌생태마을“(산림청), 관광산업과의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해양수산부), 농업기술원의 ”농촌전통테마마을“(농촌진흥청) 등이 대표적이며, 충남도 자체적인 시책은 관광산업과의 템플스테이, 종교체험관광, 녹색관광 등을 들 수 있다. 200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농어촌체험마을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친환경농업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2010년까지 총 155개 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다.

<표 2> 농촌체험마을 현황

계	녹색농촌 체험마을	친환경농업 체험마을	어촌체험 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촌생태마을
155	75	6	11	39	24

주: 녹색농촌체험마을 해지 및 포기마을 6개 마을 제외한 숫자임

1) 시군별 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

<표 3> 시군별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현황

구 분	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천안시	2		입장 연곡, 광덕 보산원
공주시	9	정안 풀꽃이랑, 정안 달원, 우성 영천, 반포 분청사기골, 유구 산수박, 정안 자연애밤토랑, 이인 장익는, 이인 운암산약수	신풍 동원
보령시	5	대천 이천, 천북 신현, 청라 토정, 천북 빙도	천북 장은
아산시	14	송악 외암민속, 송악 거상골, 탕정 산골, 음봉 지안실,	영인 신봉, 둔포 염작, 송악 강장, 송악 강당, 송악 평촌, 음봉 동천, 둔포 석곡, 영인 월선, 온양 4통, 음봉 송촌
서산시	7	해미 별, 대산 회포, 인지 솔마당, 해미 큰초록골, 지곡 목재,	팔봉 금학, 부석 마룡
논산시	12	양촌 도정, 광석 딸기, 벌곡 덕곡, 연산 오골계, 노성 삼태미, 가야곡 평매, 연산 덕바위, 성동 포전, 광석 사월1리, 광석 시골애	연산 고정, 벌곡 만목
계룡시	1	엄사 도곡,	-
금산군	14	제원 바리실, 제원 닥실, 부리 두곡, 부리 비봉, 진산 청정다람쥐, 제원 하양꽃빛, 남일 무내미, 금산 와정, 진산 두지, 진산 매현, 추부 숭암	남일 신정, 제원 용화, 부리 어재
연기군	4	소정 삼기, 서면 나리, 전동 청솔	전의 금사
부여군	5	은산 백제인동, 부여 부여기와, 장암 송죽,	조촌 신암, 옥산 홍현
서천군	5	비인 남당, 시초 들꽃동산,	기산 화산, 화양 월산, 마서 계동
청양군	15	비봉 은골구기자, 대치 장곡, 대치 칠갑산 산꽃, 장평 꽃뫼, 남양 용꿈꾸는, 화성 물여울, 정산 칠갑산 표고, 목 가마골, 장평 까치내, 화성 금바위, 비봉 용천한방, 운곡 후덕, 운곡 신대, 정산 바둑골,	대치 상갑
홍성군	6	홍동 문당, 광천 하리,	구항 내현, 홍북 노은, 장곡 산성, 서부 상황
예산군	6	신양 해바라기, 대술 꽃피는갈막, 덕산 가야산 한티,	광시 신흥, 응봉 운곡, 예산 봉산
태안군	5	소원 노을지는갯, 소원 연꽃	이원 관리, 고남 고남, 원북 매화 둠벙
당진군	4	고대 영전, 석문 푸레기, 고대 당나물물꽃승마,	신평 초대
계	114	75개소	39개소

충청남도의 시군별 농촌체험마을 조성현황은 <표 3>과 같이 아산시와 청양군이 15개 마을(13.2%), 금산군과 아산시가 각각 14개 마을(12.3%) 등의 순으로 조성하고 있는 반면, 계룡시 1개마을, 논산시 2개 마을이다.

2) 조성시기

2002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농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은 총 120개소였으나 해지 및 포기마을 6개소를 제외하면 총114개 마을이다. 조성시기는 <표 4>와 같이 2007년 28개마을(24.6%), 2006년(18.4%), 2008년 19개마을(16.7%) 등의 순으로 2006년 이후가 전체마을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농촌전통테마마을은 2008년까지 마을지정이 완료되었다.

<표 4> 농산어촌체험마을 조성시기

구분	계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2002	2 (1.8)	오학 별	구항 내현
2003	6 (5.3)	홍동 문당, 신양 해바라기	영인 신봉, 남일 신정, 대치 상갑, 이원 관리
2004	7 (6.1)	송악 외암, 제원 바리실, 은산 백제인동, 광천 하리	전의 금사, 기산 화산, 광신 신흥
2005	9 (7.0)	양촌 도정, 제원 닥실, 비인 남당,비봉 은골구기자, 소원 노을지는 갯마을, 공대 영전	입장 연곡, 신풍 동원, 천북 장은
2006	21 (18.4)	송악 거상골, 광석 딸기, 엄사 도곡, 부리 두곡, 부리 비봉, 소정 삼기, 대치 장곡, 대치 칠갑산꽃, 장평 꽃뫼, 남양 용꿈꾸는, 화성 물여울, 대술 꽃피는 갈막, 석문 푸레기	둔포 염작, 팔봉 금학, 제원 용화, 부리 어재, 화양 월산, 응봉 운곡, 고남 고남, 신평 초대
2007	28 (24.6)	탕정 산골, 대산 회포, 인지 솔마당, 벌곡 덕곡, 연산 오골계, 진산 다람쥐, 제원 하양꽃빛, 남일 무내미, 시초 들꽃동산, 정산 칠갑산표고, 목 가마골, 장평 까치내, 화성 금바위, 덕산 가야산 한티	광덕 보산원, 송악 강장, 송악 강당, 송악 평촌, 음봉 동천, 둔포 석곡, 영인 월선, 온양 4통, 음봉 송촌, 부석 마룡, 연산 고정, 벌곡 만목, 초촌 신암, 마서 계동
2008	19 (16.7)	정안 풀꽃이랑, 정안 달원, 우성 영천, 반포 분청사기골, 대천 이천, 천북 신현, 음봉 자안실, 노성 삼태미, 가야곡 평매, 부여 기와, 비봉 용천한방, 운곡 후덕, 고대 당나루물꽃승마	옥산 홍현, 홍북 노은, 장곡 산성, 서부 상황, 예산 봉산, 태안 원북
2009	12 (10.5)	유구 산수박, 정안 자연애밤토랑, 해미 큰초록골, 지곡 목재, 연산 덕바위, 성동 포전, 금산 와정, 서면 나리, 전동 청솔, 장암 송죽, 운곡 신대, 정산 바둑골	-

2010	10 (8.8)	이인 장익는, 이인 운암산약수, 청라 토정, 천북 빙도, 광석 사월1리, 광석 시골애, 진산 두지, 진산 매현, 추부 숭암, 소원 연꽃	-
계	114	75	39

주 : 해지 및 포기마을은 신대파재미(2002), 웅천 가재(2004),면천 수미(2004), 진산 가사벌(2006), 동면 장욱진생가(2006), 남면 먹수리(2009; 포기) 등 6개 마을이다.

3) 시설운영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표 5>에서와 같이 주로 체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교류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5> 농어체험마을 체험시설 현황

구 분		주 요 시 설
체험시설	영농체험	주말농장, 약초단지, 사과체험장, 독살체험, 약초단지
	농촌생활체험	밤음식체험장, 농산물가공체험장, 전통식품숙성체험실
	전통문화체험	전통문화체험관
	자연생태체험	동물체험장, 승마체험장, 곤충체험장, 천문대, 자연학습원, 연꽃단지
판매시설		구판장, 특산물판매장
숙박시설		민박시설, 폐교리모델링, 캠핑카, 빌리지하우스,
교류시설		도농교류센터, 방문자 센터, 교육관
편의시설		주차장, 마을쉼터, 정자, 건강관리실, 공중화장실, 농막, 공동샤워장, 송림공원, 황토방, 팜투어마차, 라카룸, 캠핑장, 야외공방, 튜립공원, 물레방아, 관광열차, 셔틀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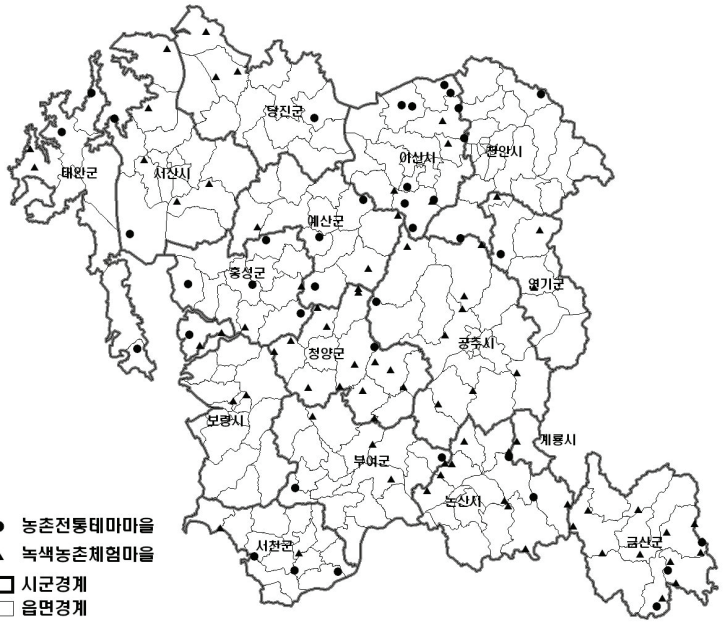
4) 체험프로그램

농촌체험마을에서 운영중인 체험프로그램은 <표 6>과 같이 영농체험, 농촌생활체험, 전통문화체험, 자연생태체험 등으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충남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영농체험	밤(사과, 딸기, 토마토, 매실, 버섯, 포도, 배, 뽕잎, 오디, 옥수수, 단호박, 토종꿀) 수확하기, 감자(고구마, 인삼, 약초, 맥문동)캐기, 바다(민물, 갯바위) 낚시, 통발, 골뱅이(조개)잡이, 벼베기, 나무키우기, 친환경농업, 누에키우기, 알밤줍기 등

농촌생활체험	메주(떡, 도토리, 우유치즈, 포도주, 손두부, 호박즙, 딸기잼, 호두과자, 종가음식) 만들기, 장(김장) 담그기, 승마, 산양젖짜기, 염전체험, 가재(다슬기) 잡기
전통문화체험	다도(꽃차), 도자기, 솟대, 천연염색, 짚풀공예, 뗏목타기, 민속축제, 전통놀이, 유적답사, 소달구지타기, 나룻배타기, 풍물교실, 약쑥찜질, 유람선, 예술체험, 전통줄다리기, 농바우끄시기, 떡매치기, 모시체험, 선비체험, 유적답사, 삼베길쌈, 칠보공예, 함초체험, 독살
자연생태체험	야생화, 산나물(고사리), 갯벌, 별자리관측, 물놀이, 래프팅, 봄꽃관찰, 박쥐동굴, 황토길체험, 연꽃체험, 해넘이, 송림욕, 생태둠벙, 곤충채집, 민물고기, 꿀벌생태체험, 녹용



<그림 3> 충남 농촌체험마을 분포도

Ⅳ.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실태분석 및 효율화방안

1. 도농교류 실태분석

1) 조사개요 및 일반사항

이 조사는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의 도농교류 실태에 대한 마을대표자, 도농교류 전반에 대한 농촌 및 도시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조사를 통하여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농촌 및 도시주민의 수요에 기반한 도농교류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따라서 이 조사는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추진실태와 도농교류의 수요 및 공급에 기반한 도농교류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촌체험마을의 조사대상은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75개소, 전통테마마을 39개소)등 114개를 모집단으로 정하고, 이중 총90개 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56개소, 전통테마을 34개소)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을조사 항목은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4개 변인을 구성하는 항목 및 일반사항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표 7>에서와 같이 남자 93.3%(84명), 여자 6.7%(6명)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체험마을의 대표자가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연령은 50대 51.1%(46명), 40대 22.2%(20명), 60대 21.1%(19명), 30대 3.3%(3명) 등의 순으로 5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마을직책은 추진위원장이 81.1%, 마을이장 7.8% 등이며, 마을유형은 녹색농촌체험마을 57.8%, 농촌전통테마마을 37.8%, 직업은 농업90.0%, 체험마을의 위치는 금산군과 청양군이 각 10개소 계룡시가 1개소이다.

<표 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표본수 = 90)		빈도(N)	비율(%)
성별	남자	84	93.3
	여자	6	6.7
	합계	90	100.0
연령	30~49세	3	3.3
	40~49세	20	22.2
	50~59세	46	51.1
	60~69세	19	21.1
	70세 이상	2	2.2
직책	추진위원장	73	81.1
	개발위원장	4	4.4
	사무장	5	5.6
	마을이장	7	7.8
	기타	1	1.1
	합계	90	100.0
마을유형	녹색농촌체험마을	56	62.2
	농촌전통테마마을	34	37.8

구 분(표본수 = 90)		빈도(N)	비율(%)
직업	벼, 과수원 등 농업	81	90.0
	농업외	9	10.0
위치	천안시	2	2.2
	공주시	7	7.8
	보령시	5	5.6
	아산시	9	10.0
	서산시	6	6.7
	논산시	8	8.9
	계룡시	1	1.1
	금산군	10	11.1
	연기군	4	4.4
	부여군	5	5.6
	서천군	5	5.6
	청양군	10	11.1
	홍성군	4	4.4
	예산군	6	6.7
	태안군	5	5.6
	당진군	3	3.3

2) 실태분석

(1)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① 도농교류 프로그램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프로그램은 <표 8>과 같이 농촌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숙박시설 제공프로그램은 대부분의 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면, 마을교류시설 제공프로그램과 농산물직거래판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마을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표 8> 도농교류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세부 프로그램명	계	존재여부	
			있다	없다
농촌체험 및 관광	영농체험, 농촌생활체험, 자연생태체험, 공예체험, 전통놀이체험, 레포츠체험, 관광연계체험	90 (100.0)	88	2
마을행사 & 이벤트	마을축제, 농촌문화행사기획, 마을행사 초청, 농산물 품평회 개최	90 (100.0)	75	15
농산물 직거래판매	직거래장터운영, 선물용 농산물판매, 계약재배	90 (100.0)	74	16
마을교류 시설 제공	주말농장 분양, 워크숍장소 제공, 자매결연 기업 및 가족 위한 휴양공간 활용	90 (100.0)	72	18
숙박시설 제공	농가민박, 펜션, 마을회관, 황토방 등에서 숙박	90 (100.0)	86	4
음식물제공	민박, 펜션, 마을회관 등에서 음식물 제공	90 (100.0)	76	14

② 도농교류확인서 발급한 경험 및 발급계획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면서 초중고등학생에게 교외체험학습 인정근거가 되는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해준 마을은 <표 9>에서와 같이 50%이다. 발급하지 않은 마을을 대상으로 향후 발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6.7%가 발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이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위한 장으로 충분한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여부

구분	발급여부		발급계획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있다	45	50.0	39	43.3
없다	45	50.0	6	6.7
합계	90	100.0	45	100.0

(2) 갈등의 효율적 관리

① 주체들 간의 갈등

도농교류 주체들 간의 갈등양상을 살펴보면 <표 10>에서 보여 주듯이 마을주민간 갈등이 3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마을대표자와 주민간 갈등이 24.4%인 반면, 마을대표자들간 및 마을대표자와 행정기관간 갈등은 각각 12.2%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마을주민간 및 마을대표자와 마을주민간 갈등은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0> 마을주민간 갈등

구 분		빈도	비율(%)
마을주민간	전혀 없다	11	12.2
	없는 편이다	47	52.2
	있는 편이다	30	33.3
	매우많다	2	2.2
	합계	90	100.0
마을대표자와 주민간	전혀 없다	14	15.6
	없는 편이다	54	60.0
	있는 편이다	21	23.3
	매우많다	1	1.1
	합계	90	100.0
마을대표자들간	전혀 없다	18	20.0
	없는 편이다	61	67.8
	있는 편이다	11	12.2
	합계	90	100.0
마을대표자와 행정기관간	전혀 없다	31	34.4
	없는 편이다	48	53.3
	있는 편이다	11	12.2
	합계	90	100.0

② 운영과정상 장애요인

도농교류사업 운영과정상 장애요인은 <표 11>과 같이 인력부족 및 주민의 비협조 24.4%, 홍보부족 14.4%, 체험프로그램 부족 13.3%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11> 도농교류사업 운영과정상 장애요인

구 분	빈도(명)	비율(%)
체험프로그램 부족	12	13.3
인력부족 및 주민의 비협조	22	24.4
소득증대효과 미흡	11	12.2
홍보부족	13	14.4
편의시설 및 체험기반시설 부족	7	7.8
비용부담 또는 수익금 배분 문제	8	8.9
마을대표자, 주민 등의 갈등	2	2.2
장애요인 없이 잘 운영	12	13.3
쓰레기 처리	2	2.2
주민들의 무관심	1	1.1
합계	90	100.0

(3)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① 홍보수단

도농교류를 위한 홍보수단으로는 <표 12>와 같이 마을홈페이지가 47.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마을축제 개최, 홍보팜플렛 등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을축제와 홍보팜플렛을 이용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마을홈페이지에 의존한 홍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과 같이 재원투자가 필요 없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수단을 발굴하여 활용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표 12> 도농교류 홍보수단

구 분	빈도(명)	비율(%)
마을홈페이지	43	47.8
시청, 군청 홈페이지	5	5.6
홍보팜플렛	11	12.2
지역신문이나 TV	2	2.2
축제개최	12	13.3
기업체, 학교 등에 대한 홍보	8	8.9
마을안내 홍보판 설치	5	5.6
입소문	3	3.3

인터넷카페・블로그	1	1.1
합계	90	100.0

② 마을홈페이지 보유여부

마을홈페이지는 <표 13>과 같이 80.0%의 마을에서 개설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의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음, 향후 계획중인 마을도 5.6%에 달하고 있다.

<표 13> 마을홈페이지 보유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있다	72	80.0
없다	13	14.4
현재 없지만 계획중이다	5	5.6
합계	90	100.0

③ 홈페이지에 대한 만족도

마을홈페이지를 보유한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만족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표 14>와 같이 만족한다는 응답이 82.0%로 대부분의 마을 홈페이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지만, 약 20%정도는 불만족하고 있어 마을홈페이지의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14> 마을홈페이지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12	16.7
만족하는 편	47	65.3
만족하지 않는 편	12	16.7
매우 불만족	1	1.4
합계	72	100.0

(4)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

①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표 15>와 같이 농촌체험마을의 70.0%가 마을발전을 위한 청사진인 중장기 마을발전계획이 수립하고 있으나, 30%의 마을은 계획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농교류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5> 중장기 마을발전계획 수립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수립되어 있다	63	70.0
수립되어 있지 않다	27	30.0
합계	90	100.0

②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시행

2008년부터 시행된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시행된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표 16>과 같이 93.3%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들은 도농교류에 대한 정책동향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6>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시행 인지여부

구 분	빈도(명)	비율(%)
알고 있다	84	93.3
모른다	6	6.7
합계	90	100.0

③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신청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에 의거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해 <표 17>과 같이 73.3%가 신청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상당수의 마을이 도농교류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7>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신청여부

구 분	빈도(명)	퍼센트
그렇다	66	73.3
그렇지 않다	24	26.7
합계	90	100.0

④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은 <표 18>과 같이 행정기관의 사업비 지원이 30.0%, 도농교류사업홍보 15.6%, 마을내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13.3%, 도농교류시설확충 10.6% 등의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에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 홍보, 전문인력 양성, 시설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아직도 도농교류사업을 행정기관의 사업비 지원에 의존하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은 상당수의 마을이 자립적 마을발전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8>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항

구 분	빈도(명)	비율(%)
마을내 갈등 해소	6	3.3
주민의 선진지 견학 및 교육	16	8.9
도농교류 시설 확충	19	10.6
행정기관의 사업비 지원	54	30.0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컨설팅	11	6.1
마을내 도농교류 전문인력 양성	24	13.3
도농교류 사업 홍보	28	15.6
농특산물 판매지원	12	6.7
행정기관-마을대표-마을주민간 연계체계 구축	6	3.3
체험마을-교육농장-개별농가간 연계체제 구축	4	2.2
계	180	100.0%

이상의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도농교류 프로그램은 농촌체험 및 관광, 숙박시설 제공프로그램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절별로 보면, 봄에는 농작물심기, 나물캐기, 전통음식 체험, 여름에는 농작물 수확 및 농사체험, 가을에는 농작물 수확, 음식만들기, 겨울에는 문화체험, 전통놀이체험 등이 대표적이다.

조사대상 마을 과반수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한 경험이 있으며, 대부분의 마을에서 향후 발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농촌체험마을이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충분한 활용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농촌체험마을의 갈등은 마을주민간, 마을대표자와 마을주민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 운영과정상 장애요인으로 인력부족 및 주민비협조, 홍보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조사대상 마을의 80%가 도농교류 홍보수단으로 마을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고, 마을축제, 홍보팜플렛 등을 부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마을홈페이지에 대한 마을주민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홍보 이외 도농교류와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못했다. 넷째,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농촌체험마을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인 중장기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된 마을이 70.0%에 달한다. 대부분의 농촌체험마을 대표자는 도시농어촌교류촉진법 시행을 인지하고 있으며, 법규상에 규정된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신청할 의향이 있어 도농교류사업의 지속추진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도농교류의 활성화 방안

1)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농촌체험프로그램이란 참여자 스스로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해당 활동 또는 행사의

취지를 느끼고 진행자의 의도를 따라가는 시간대별 진행계획을 말한다. 도농교류는 방문자가 농촌을 직접 방문하여 각종 자원을 소비하는 것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체험이며 농촌체험프로그램은 이러한 농촌체험활동이 일어나도록 계획된 진행계획을 말한다(안종현: 2008).

농촌체험프로그램은 단순히 체험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박, 농산물 판매, 식음, 체험, 휴양 등과 연계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 민박도 단순한 민박이 아니라 체험프로그램에 덧붙여질 때 가치를 발휘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은 이용객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만들어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도농교류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주요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농사체험, 음식만들기, 전통염색, 공예체험 등 지역과 마을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음식체험, 농사체험 등의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프로그램성격이 서로 유사혐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체험하고 학습하며, 즐기러 가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방문객들의 취사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다(김명룡: 2008).

따라서 체험프로그램은 지역의 고유하고 독특한 가치를 발굴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혜현 외(200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방문객이 가장 선호하는 체험프로그램은 농촌생활과 관련된 체험이거나 자연생태와 관련된 체험이다, 따라서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프로그램은 농촌생활과 관련 체험프로그램과 자연과 관련된 체험프로그램이다.

농촌체험마을에서는 농사체험, 농촌토속음식제조, 농가생활풍습 등 농촌생활과 관련한 체험프로그램과 자연생태체험 등을 기본으로 하여 해당마을의 자연경관이나 역사문화자원, 영농조건 등 해당마을의 특성을 고려하되 타 마을과 차별화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갈등의 효율적 관리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 지역주민과 추진위원회간의 갈등, 행정과 주민의 갈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갈등 양상 특히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농촌체험마을의 주민갈등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사업에 발생하는 주민갈등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갈등 유발요인 외에도 내재되어 있는 갈등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체험마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 조직・구조적 요인,

사회적요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갈등요인을 보면, 개인적 요인은 목표와 인식의 차이, 리더십의 문제,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조직·구조적 요인은 책임분담과 이익분배의 문제, 의사소통의 문제, 사회적 요인은 농촌사회의 폐쇄성 등을 들 수 있다.

농촌체험마을의 행동주체에 따른 갈등은 지자체담당공무원과 주민, 마을지도자와 주민, 마을지도자간, 마을 주민들간 갈등 등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원천에 따라서 목표와 인식의 차이에 의한 갈등,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한 갈등, 리더 빚의 문제로 인한 갈등,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갈등, 리더십의 문제로 인한 갈등,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갈등, 책임분담과 이익분배의 문제로 인한 갈등, 농촌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갈등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표 19>와 같이 예상되는 갈등원인과 유형, 원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 19> 농촌관광마을의 갈등원인

구분	갈등요인	세부내용
개인적요인	목표와 인식의 차이	-사업의 목표에 있어서의 차이 -사업추진과 운영과정에서의 인식의 차이
	리더십의 문제	-지도자로서의 역량 미흡 -지도자의 독단적 사업추진 -사업운영상의 투명성 결여 -지도자의 과도한 책임과 희생요구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타인에 대한 반감이나 오해 -타인의 소득, 지위획득 등에 대한 시기
조직·구조적 요인	책임분담과 이익분배의 문제	-마을공동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추구 -책임분담과 이익분배의 형평성 결여 -무임승차의 발생
	의사소통의 문제	-주민간 원활한 의사소통 기회부족 -의견 조정과정의 부재
사회적 요인	농촌사회의 폐쇄성	-타마을과 외지인에 대한배타적 인식/차별적 행동

자료 : 조중현. (2007). 마을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간 갈등의 근거이론적 해석 : 농촌체험마을 주민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32.

도농교류사업 추진과정의 주민갈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체험마을의 주민갈등양상을 종합해보면 각 단계별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갈등이 해소되거나 환화되는 효과가 있었지만, 갈등원인이 내재되어 있어 언제든지

심각한 수준으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도농교류사업 추진과정의 주민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관리수준을 넘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 및 네트워킹 강화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다. 현재 마을의 홍보활동이나 마을 방문객의 마을정보 수집이 주로 마을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서 마을별 홈페이지 운영강화와 함께 방문객들과 유대강화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을별 홍보활동이 마을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듯이 방문객의 경우도 깨끗한 자연환경과 가족체험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마을운영자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마을이미지 강화와 아울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의 정보를 방문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을홈페이지의 외부사이트 링크홍보 강화와 마을 안내책자, 마을내 안내판 등을 보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체험마을은 도농교류를 추진할만한 내부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객유치를 위하여 외부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업인들은 대부분 마케팅, 경영, 회계, 시설계획 등 핵심역량이 부족하므로 사업자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평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농교류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도시소비자 및 각종 단체와 도농교류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자매결연, 회원제 사업,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인연을 만들어 고정 고객을 확보한다. 또한, 타 지역의 마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들과 협력하여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필요시 행정지원을 획득하도록 한다. 농산물을 파는 도시의 시장과는 달리, 도농교류사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쌍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김명룡: 2008).

4)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

도농교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행정관리조직의 단순화와 도농교류 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이 필요하다. 행정관리조직의 단순화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은 몇 개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농업정책과, 어촌체험마을은 수산과, 산촌생태마을은 산림녹지과,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을 추진 및 관리하고 있다. 이와같이 농촌체험마

을을 관리 및 지원하는 부서가 다양함에 따라 마을대표자에 대한 업무 및 교육이 반복하면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농산어촌간 업무협력이 있을 경우 업무부서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 등 활동반복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통합적 행정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효율적 업무가 이루어지고 정부정책지원사업 등에 대한 대처방안에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도농교류 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도농교류 조직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체험마을 간의 조직화를 통해 방문객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간 시설, 프로그램, 농·특산물, 인력 등을 교류하고 연결망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하고 풍부한 상품구색을 갖추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안군의 도농교류센터, 평창군 그린투어 사업단, 장수군의 도농교류협의회 등과 같은 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이 요구된다.

또한,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의 수립관련해서는 도농교류촉진법 제12조 1항에서는 이 계획의 수립 및 시행근거가 제시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에는 계획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주요 계획내용은 도농교류프로그램, 도시민의 도농교류에 대한 이해증진 및 참여확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어촌축제, 도시민의 농어촌정주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도농교류 교육, 홍보,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는「도농교류 5개년('10～'14)계획」수립하였기 때문에 이의 하위계획으로서 자치단체 도농교류 통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Ⅴ. 결 론

충청남도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실태・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요구된다. 마을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가 및 마을단위 소규모 축제의 개최,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교육의 확대, 농촌유학 등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원인의 명확한 파악, 사업수입 및 혜택의 고른 배분, 권한견제를 위한 조직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확립, 지도자의 자질향상과 리더십 정리, 실효성 있는 마을규약 및 정관제정, 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강화,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마을여건을 고려한 사업운영 방식 채택, 갈등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이 강화되어야 한다. 차별화된 마을홈페이지를 통한 홍보강화, 마을브랜드의 개발 및 운영, 지속적인 도시방문객 관리,

도시소비자 및 각종단체, 자매결연, 회원제사업, 이벤트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도농교류 지원시스템 구축도 요구된다.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농교류 담당 행정관리조직의 단순화, 진안군의 도농교류센터, 평창군 그린투어 사업단, 장수군의 도농교류협의회 등과 같은 지원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첫째,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농교류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에 근거하여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도농교류시책 추진이 요구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도농교류조례 제정 및 도농교류전담부서의 설치가 요구된다. 다섯째, 도농교류 전문가들의 컨설팅 및 코칭 강화가 시급하다. 여섯째, 도농교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미칭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도농교류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여덟째, 농촌체험마을의 도농교류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고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원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승진. (2009). 제주지역 농업・농촌체험장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 2009-2, 제주발전연구원.

강신겸·김정연. (1997). 녹색관광, 일신사.

강신겸. (2002). 도농녹색교류사업의 정책평가와 향후 발전방향.

강원도농업기술원. (2008). 농촌관광 활성화 지역의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경영전략 연구, 농촌진흥청.

강원도농업기술원. (2007). 전통테마와 녹색체험마을 : 강원도 농촌관광.

김명룡. (2008). 농촌전통테마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완주 디지털 산내골을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15(3): 516-527.

김미영 외. (2008).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2): 29-31.

김병률 외. (2001).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2차년도 평가와 개선방안, C20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김영수・박종안. (2009). 한국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성공요소에 관한 사례연구 :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제19집 2호.

김용근. (2009). 농산어촌체험교육과정 확대 및 강화의 필요성,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토론자료, 국회.

김점수. (2008). 자연휴양림을 활용한 인접지역 주민소득 증대방안,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 07-07.

농촌진흥청. (2009).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의 기본이념과 실천방안 : 새로운 농촌 정신문화 운동의 전개.
박대식 외. (2009). 삶의 질 향상 기본 및 실행계획 추진평가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종유. (2007). 도농교류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농어촌과 환경, 통권 제94호.
송두범. (2002). 농어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육성방안, 기본연구과제 2003-01, 충남발전연구원.
송두범·정환영. (2010). 충남 도시농촌 교류정책의 현황 및 과제, 충남리포트 제36호, 충남발전연구원.
송미령. (2003).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농촌어메니티 형성방안, 2003년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세미나.
안종현. (2008). 농촌체험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 : 광양시 신촌마을과 장흥군 진목마을의 사례,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유정규. (2006). 도농상생을 위한 도농교류의 의미와 활성화 전략, 지역재단 창립2주년 기념 심포지엄.
이인배 외. (2005). 충청남도 농촌체험관광 실태와 활성화 방안 : 체험프로그램 과제의 도출을 중심으로, 기본연구과제 2005, 충남발전연구원.
이혜현 외. (2008). 농촌관광 방문객의 선호체험프로그램 분석, 문화관광연구, 8(1): 322.
임경수. (2005). 도농교류의 현황과 과제, 계간 농정연구, 통권제14호, 농정연구센터.
임상봉. (2007). 도농교류의 유형별 수요분석 및 교류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공사.
전영미. (2003). 농촌관광을 고려한 마을정비방안, 새국토연구협의회 세미나자료집.
전준헌 외. (2008). 산촌체험관광 발전방안, 국립산림과학원.
정기환. (2001). 농촌지역활성화를 위한 그린투어리즘 정책의 발전방향, 농촌경제, 24(2): 144-170.
정지영. (2009). 농촌광광자원 개발 및 육성시책, 경기도인재개발원.
제주발전연구원. (2009). 제주지역 마을만들기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조중현. (2007). 마을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주민간 갈등의 근거 이론적 해석 : 농촌체험마을 주민간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 대학원.32.
진안군 마을만들기 홈페이지(http://www.jinanmaeul.com).
한국관광공사. (2006). 농촌관광 지원체계개선 및 상품선진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
한국농촌공사・농어촌연구원. (2008). 민간단체와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신농업 비전과 전략.

접수일(2011년 02월 03일)
수정일자(2011년 02월 15일)
게재확정일(2011년 02월 25일)